

LG, 구미 6세대 LCD 라인 증설

3월 중순부터 40인치 이하 제품 생산 ... 모니터·노트북 채용 확대

LG디스플레이가 구미 소재 6세대 LCD 라인의 증설작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6세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생산라인의 증설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3월31일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40인치 이하의 중소형제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구미공장에 1조3600억원을 들여 6세대 LCD 생산라인을 증설해왔으며 최근 공사가 끝나 3월 중순부터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6세대 생산라인에서는 모두 11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1500명까지 고용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4월15일 LG디스플레이 구미 P6E공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증설라인을 통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니터·노트북용 소형 LCD를 생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31>